

국어 공부 방법1. 비문학 기출분석 방법

제가 현역 시절 한 번도 국어 1등급이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비문학이었습니다. 17수능에서도 총체주의 지문은 거의 이해를 못한 수준이어서;;; 그래서 재수할 때 가장 열심히 공부한 부분이 바로 비문학입니다. 그리고 5월 6월정도 와서는 정말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6월 원점수 96, 9월 원점수 97, 수능 원점수 98. 그럼 재수할 때 엄청난 문제를 풀었나 하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7월 전까지 저는 오로지 기출분석만 했습니다.

제가 현역 때 기출을 푼다며 한 짓부터 소개하려 합니다. 기출분석을 하려는 수험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식이나 하면, 기출을 1번 풀고 오답한다고 다시 기출을 보는데 지문과 문제, 답이 모두 기억난다는 겁니다. 기출 n회독 해야 한단데 지문 내용과 답이 다 기억나니까 n회독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는 기출을 푸는 것은 그만두고 다른 문제들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기출을 푼 것인지 기출을 분석한 것이 아닙니다. 기출은 한번 풀고 그만 풀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수험생분들 최소한 2번에서 3번 분석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왜 기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수능을 치기 시작한지 20년이 다 되어가며 기출문제들이 쌓이면서 패턴이 생겨난 겁니다. 지문의 형태나 문제가 나오는 부분(평가원식 코드), 보기의 형태가 반복출제 된다는 거죠. 이것은 기출을 보며 느끼지 않으면 믿기 힘든 부분입니다만 기출분석을 시작하면 놀라울 정도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8학년도 9월 모의고사를 치르고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31번 문제의 보기가 자꾸 눈에 익은 것입니다. 몇 일동안 머리를 쥐어짜낸 결과 기출에 똑같은 형태를 가진 보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31. 빛깔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였고, B는 LP를 받아들인 뿐 아니라 양자 역학에서 상호 패터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A와 B는 아래의 (㉠)-(㉢)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다.

(㉠)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라는 상태에 있다.
(㉡)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와 패터적인 상태에 있다.
(㉢) 반지름 5cm의 궤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 반지름 5cm의 궤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단, (㉠)과 (㉡)의 전자 e는 동일한 전자이고 (㉢)과 (㉣)의 궤는 동일한 궤이다.)

- ① A는 (㉠)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외에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B는 (㉠)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 ③ A와 B는 모두 (㉢)이 '참'일 때 (㉣)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④ A는 B와 달리 (㉡)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⑤ B는 A와 달리 (㉣)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25. 빛깔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A는 정서주의자이고, B는 도덕 실재론자이다. 두 사람은 모두 '아름다움'과 '홀지 않음'이 각각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에 대응한다고 본다. 또한 다음 두 예술적 판단에 대해, A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정서주의의 설명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B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도덕 실재론의 설명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예술작품 △△는 아름답다.
(㉡) 예술작품 △△는 아름답지 않다.

- ① A와 B는 모두 예술적 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군.
- ② A는 '아름다움'이라는 성질이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생각하겠군.
- ③ A는 (㉠)과 (㉡) 중 하나는 '참'인 명제라고 생각하겠군.
- ④ B는 (㉠)과 (㉡) 중 하나는 '거짓'인 명제라고 생각하겠군.
- ⑤ B는 (㉠)과 (㉡)은 모두 예술작품 △△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표현한다고 생각하겠군.

25. 빛깔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 (㉡)에 대한 A와 B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를 매년 같은 날 관측했더니 100, 110, 120, 130, 140℃로 해마다 10℃씩 높아졌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다음 두 가지 예측을 제시하였다.

(㉠)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150℃일 것이다.
(㉡)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200℃일 것이다.

○ A와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한다. 하지만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B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순서대로 2018학년도 9월, 2016학년도 9월 a형, 2016학년도 수능 a형입니다. 이렇게 보기의 형태까지 비슷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출을 분석하여 기존에 출제된 패턴을 분석하여 익숙해지면 수능을 볼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기출분석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으면 일단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잡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평가원은 수능의 독서부분에서 학생들의 어떤 능력을 보려 하는 걸까요? 당연히 학생들이 얼마나 글을 잘 이해하는지이겠죠. 글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무슨 내용을 전달하는지 등등을 알아야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시간이 촉박한 시험장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기출 분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문을 읽으며 각 문단의 중심내용을 정리한 다음 각각의 문단의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지문의 내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지문이 궁극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해본다. 즉 각 문단의 주제와 문단 간 연결이 어떻게 지문을 만드는지 본다는 것이다. 초반에는 각 문단의 중심내용을 한두문장으로 적으며 정리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이 방법에 익숙해지면 머리속으로 생각해도 충분하다. 익숙해졌다는 것의 기준은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을 읽으며 바로바로 문단의 중심내용이 생각나며 문단과 문단 간의 연결이 이루어져서 지문을 다 읽었을 때 쯤 지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는지의 여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의 구조에 대해 생각한다(어려운 지문에서 도움을 많이 받음)

2. 지문을 읽으며 평가원식 코드를 찾아 표시한다. 여기서 평가원식 코드란 평가원의 지문에 나오는 패턴들로 문제 특히 세부내용 일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말한다. 평가원식 코드에는 1)정의, 2)비교대조(분류), 3)비례반비례, 4)인과, 5)예시, 6)과정, 7)묘사, 8)질문 후 답변, 9)문제제기 후 해결책, 10) 필자의 관심사 11) 접속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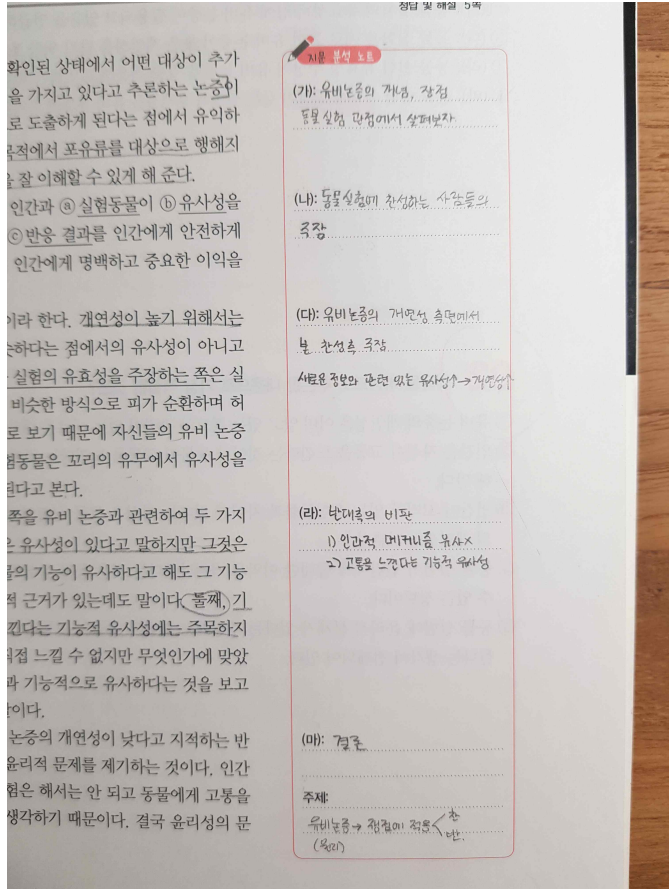
- 1) 생소한 용어를 정의한 것
- 2)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3) ~수록~하다 등등 비례반비례 관계나 관계식이 나오는 것(대표적으로 보험지문)
- 4) 원인과 결과를 소개하는 것
- 5) 예시를 드는 것, 예시를 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어렵지만 중요하지 않으면 예시를 들지 않는다.
- 6) 과정을 말하는 것, 무엇이 변화했는지, 발달했는지에 주목
- 7) 대상의 특징, 생김새, 구조 등등을 꼼꼼히 묘사하는 것
- 8)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것, 질문을 하면 꼭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고 중요한 내용일 것이다
- 9) 문제를 말한 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문제를 제기하면 무조건 해결책이 있을 것이고 중요한 내용일 것이다.
- 10) 지문의 필자가 첫 문단 정도에 적어놓은 필자의 관심사가 집약된 문장, 지문의 방향성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다.
- 11) 그러나, ~뿐만 아니라, ~달리 등등 중요한 접속사, 중요한 문장의 앞에는 접속사가 온다.

위의 코드뿐만 아니라 기출분석을 계속하면 자기 자신만의 새로운 코드가 생긴다. 이것들을 표시하고 염두해두며 지문을 읽으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 기출을 분석하면 평가원식 코드가 정말 문제에 출제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평가원식 코드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여 체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 초반에는 정해진 평가원식 코드에 집착해야 하지만 기출분석을 계속해서 익숙해지면 지문을 읽으며 중요한 부분이 보인다.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이 문제에 나온다.

3. 문제를 보며 어떤 문제인지 분류한다. 문제의 종류에는 세부내용일치문제, 구체적사례적용 문제, 추론문제 등이 있다. 문제종류분석은 자기가 기출문제 중 틀린 것이 어떤 문제이고 다른 지문의 같은 종류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알아보고 종류별로 가장 바람직한 풀이 방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4. 문제를 풀고 선지마다 정답이고 오답인 이유를 적는다. 이 때 앞에서 찾은 평가원식 코드가 많은 도움이 된다. 선지의 대부분은 문단 중심내용, 평가원식 코드에서 나온다.
5. 답을 맞추고 오답인 문제를 체크한다. 틀린 이유를 생각하고 다음에는 틀리지 않는 방법을 생각한다. 길게는 몇 일을 고민해도 된다. 이때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실력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앞에서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했는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예시를 들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17 6월 유비논증 지문을 문단 별로 요약한 후 주제를 적은 모습(기출문제집은 미래로)



처음에는 이렇게 문단별 요약을 적으면서 지문의 구조와 전체 내용에 주목한다.

※글의 구조는 정해져있는 것이 없다. 지문을 읽을 때마다 이 지문의 구조가 독특한 면이 없는지 살피면서 읽으면 시험장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문의 구조를 외우려고 할 필요는 절대 없다. 자주 보면서 눈에 익게 한다는 것이 알맞은 표현이다

예시) 18학년도 DNS 스푸핑 지문을 보면, DNS 스푸핑은 도네임 네임을 IP주소로 변환해 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는 마지막 문단 전까지 IP주소, DHCP, 프로토콜 등등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는 마지막 문단에 가서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말한다. 이 지문은 화제를 제시하고 그 화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개념과 용어를 일단 설명한 다음 마지막에 그 화제에 대해 설명하는 독특한 지문구조이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런 복잡한 지문을 만났을 때 갑자기 화제가 바뀌는 것 같아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 지문 구조는 2016학년도 수능시험의 유명한 기판력 지문에서 쓰인 지문구조이다. 기판력 지문에서는 법적 문제에 대해 설명한 후 해결 가능하다고 말하고는 3문단동안 기판력에 대해 설명하고는 마지막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필자는 기출분석을 열심히 하여 18학년도 6월 모의고사 시험장에서 DNS스푸핑 지문의 구조와 변론술 지문을 연결시켜 풀 수 있었다. 기출분석을 열심히 하면 이런 이득도 볼 수 있다.

2. 17 6월 모의 유비논증 지문

2016년 6월 평가원 모의수능평가

(가) 유비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유비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 필자 관심사

(나) 유비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 실험동물이 ㉡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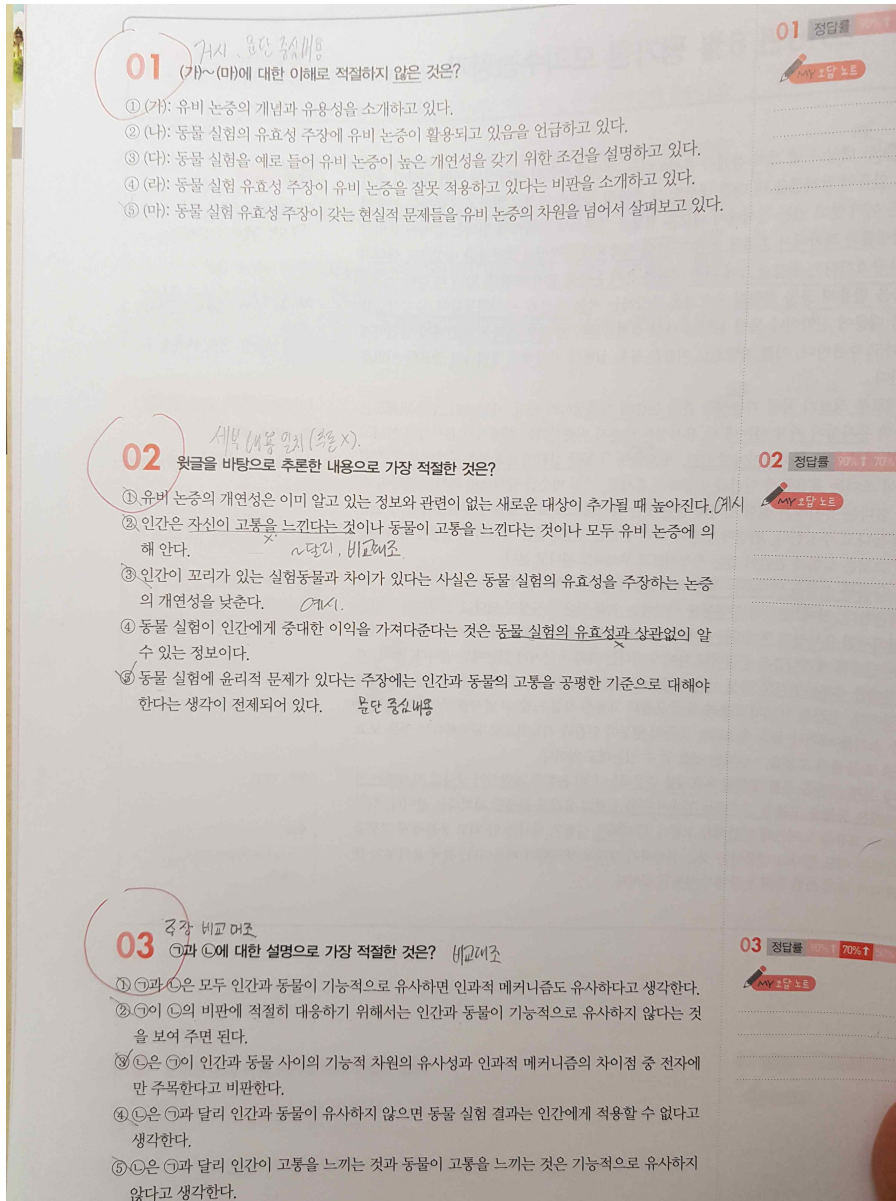
(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라) 그러나 ㉠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 말이다.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이다.

(마)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는 유비논증 지문에 있는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면서 읽어내려간 것이다. 최대한 꼼꼼히 평가원식 코드를 찾으려 노력하며 이것을 체화시켜야 한다.

3.4. 유비논증 지문의 문제들을 분석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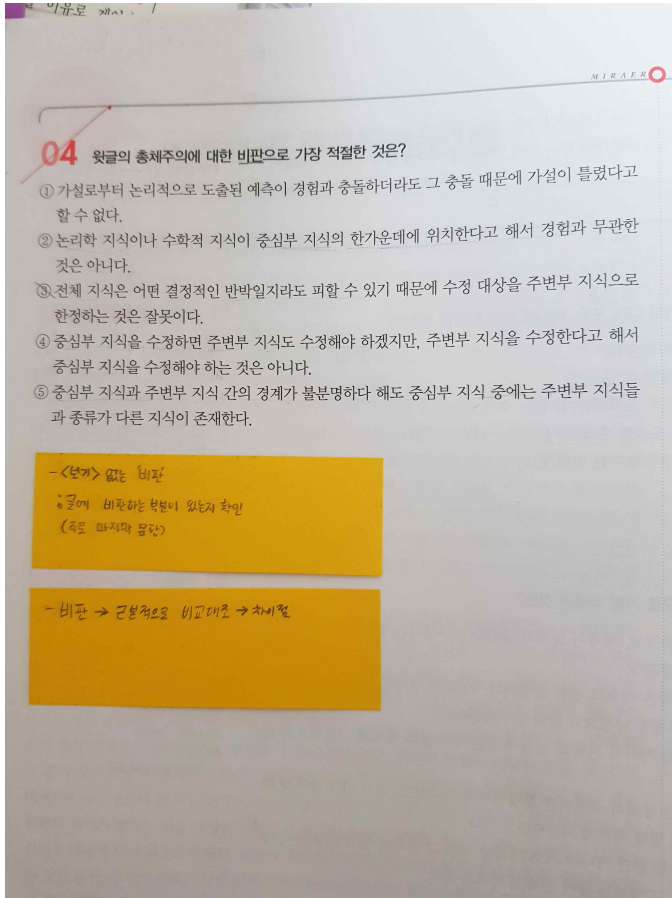


3. 문제들의 유형을 분류하며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 볼 수 있다.

4. 모든 선지가 왜 답인지, 답이 아닌지 생각하며 지문의 평가원식 코드 중 무엇에 해당하는 지 적는다. 이 과정을 통해 평가원식 코드가 얼마나 문제의 출제부분과 같은지 체감하며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이 체화되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 답의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져 시간을 정말 단축시킬 수 있다.

5. 틀린 이유를 생각하고 틀리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다.

예시) 17수능 19번, 총체주의 지문 4번째 문제.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 보고 있다.



의견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보기문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보기없이 나왔을 때 당황했다. 일단 비판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를 기출에서 찾아보기 시작했다(3번의 문제유형분석과도 연결됨). 보기가 있는 비판 문제는 지문의 의견과 보기에서 주어진 의견과의 비교대조를 통해 풀면 쉽지만 보기가 없을 경우 비교대조할 의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린 결론은 보기가 없는 비판문제는 글에 무조건 비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라는 것이다.

예시2) 18 9월 모의고사 42번, 집합의례 지문 4 번째 문제

42. 윗글에서 설명한 '사회적 공연론'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A시에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A시의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각장을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A시 시민들은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려 집회를 이어 갔다. 반대파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소각장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찬성파는 반대파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 토박이와 노인은 반대 운동에, 이주민과 젊은이는 찬성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중앙 언론은 이 사건이 지역 내 현상이라며 이에 보도하지 않았다. 반대파는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 했지만 경찰이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 ① 공연의 미장센이 A시에 한정되어 펼쳐지고 있군.
- ②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되어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났군.
- ③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배우로 직접 나서고 있군.
- ④ 상징적 생산 수단과 사회적 권력이 공연의 전국적 전파를 막으려 하는군.
- ⑤ 배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하는군.

9월 모의고사 중 가장 필자에게 어렵다고 느껴진 문제. 시험이 끝나고 한달동안 풀이방법을 고민. 지문의 한 단어 한 단어 트집 잡으면서 별 생각을 다 해보다 답이 나옴. 바로 지문과 연결하여 푸는 것. 생각보다 답이 너무나 당연해서 어이없을 수도 있지만 긴 시간의 고민 끝에 나온 깨달음이라 임팩트가 다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민을 하다 보면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시로 고민하면 실력이 많이 오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해야 할 것은 6월9일 모의고사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수능의 독서지문들은 6월9일 모의고사들과 비슷하게 출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시)

17학년도 9월 모의고사 콘크리트 지문 28번 문제와 17학년도 수능 보험 지문 39번 문제의 유사성-모두 비례반비례관계를 이용하여 푸는 문제

28. 빗금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철재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와 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B에 힘을 가하며 변형을 관찰하였다. A와 B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줄어들면서 지름은 늘어났다. 또, A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늘어나면서 지름이 줄어들었다. 이때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으로 나누어 포아송 비를 구하였더니, 일반적으로 알려진 철재와 콘크리트의 포아송 비와 동일하게 나왔다. 그리고 A와 B의 포아송 비는 변형 정도에 상관없이 그 값이 변하지 않았다. (단, 힘을 가하기 전 A의 지름과 높이는 B와 동일하다.)

- ① 동일한 압축력을 가했다면 B는 A보다 높이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 ② A에 인장력을 가했다면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은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보다 컸을 것이다.
- ③ B에 압축력을 가했다면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은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보다 작았을 것이다.
- ④ A와 B에 압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B의 지름이 A의 지름보다 더 늘어났을 것이다.
- ⑤ A와 B에 압축력을 가했을 때 늘어난 지름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A의 높이가 B의 높이보다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39.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예시2) 18학년도 9월 집합의례 지문과 18학년도 수능 목적론 지문의 유사성-집합의례지문에서는 집합의례에 대한 의견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 목적론지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의견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

기출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꾸준함입니다. 매일 1지문이라도 분석을 하면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실력이 일취월장할 겁니다.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